

(2011.12.1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치 사

신묘년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에 참석하신 여러 대덕 스님들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13회째를 맞이한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영역이지만 ‘나눔’이라는 공통의 소임을 함께 한 이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나눔 실천’의 면면을 돌아보고, 상호간 노고를 격려하며 따스한 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빌려,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전법의 뜻을 지혜로써 펴고 자비로써 실천하는 많은 사회복지 지도자 및 실천가 여러분들과, 무주상보시의 화현인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근래 우리사회는 시장경제의 위기 속에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논의되는 가운데 종교의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회참여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불교조계종단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는 비단 종단 내, 불교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향기로써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시대적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나눔 결사”의 역사적 실천 주체로서 불교증흥과 나아가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는 큰 걸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임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화엄경에 담긴 말씀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토 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이 없는 행(行)과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